

“나주 배 먹으면 양치 효과”

농진청 발표 … 石細胞가 프라그 없애

나주 특산인 배(梨)를 먹으면 간단한 양치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풍부한 과즙과 다른 과일에는 거의 없는 ‘석세포(石細胞)’로 인해 배를 먹으면 이 사이에 끼는 때인 프라그 제거 효과가 있다.

한 치과의 실험에서도 배 반 개를 먹으면 치아 프라그가 20%, 3분의 1 쪽을 먹으면 1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가 지닌 양치 효과의 비밀은

석세포에 있다. 리그닌과 펜토산 성분의 세포가 막이 두꺼워지면서 형성된 석세포는 사과와 감의 경우 껍질에만 아주 작은 크기가 있지만 배에는 100g당 약 0.64g이 있으며 껍질에는 직경 0.5mm, 과육에는 0.1~0.3mm 크기의 석세포가 존재한다.

석세포로 인해 배를 먹을 때 부드러운 알갱이가 심하는데 이 알갱이가 이 사이의 프라그를 없애주는 것이다.

/연합뉴스

영광~목포~광양 총연장 1,476km

‘해안 자전거 도로’ 만든다



담양~영산강 하구언 253km도 … 사업비 6천억 투입

뛰어난 경관과 생태를 자랑하는 전남 서남해안과 남도의 젖줄 영산강변을 잇는 1천729km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과 연계해 영광에서 광양까지, 그리고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2개 구간의 자전거 도로(Bike Way)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석세포로 인해 배를 먹을 때 부드러운 알갱이가 심하는데 이 알갱이가 이 사이의 프라그를 없애주는 것이다.

영광~목포~진도~고흥~여수~광양을 연결하는 1천476km 구간의 ‘해안길 자전거 도로’ 개설에는 5천90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담양댐과 영산강 하구둑을 연결하는 253km 길이의 ‘영산강 하구언 253km’ 구간 사업에는 1천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남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구상(안)’을 수립,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새로 조성될 자전거도로는 서남해안 일주도로인 국도 77호선과 서남해안 인근 농어촌 도로·군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며, 각 지역의 관광·문화명소와 생태자원, 해안 절경, 섬 일주도로 등과도 연계되는 것은 물론 전국을 연결하는 정부의 자전거 네트워크망과 연계된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사업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

내 자전거도로 구간이 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자전거도로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1천333억 원을 투입해 22개 시·군의 911km 구간에 대해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왔으며, 이번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전거를 타고 서남해안 곳곳을 누비며 청정해안과 남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자전거 도로 개설과 함께 관련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전남 서남해안과 영산강변이 국내외 관광객과 도보여행자, 자전거 마니아 등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보고 싶은 녹색의 땅 전남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기초자치단체 통합 특별법 추진

행정체제 개편과 별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 및 촉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만령

- 김종우



그래도 두분들 보단 훨씬 잘했어요

여수박람회 여기서 열려요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24일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 설치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축소 모형’ 앞에서 방문객들과 각종 전시시설과 엑스포 타운

〈전남도 제공〉

고소미·고래밥 등서 멜라민 검출

스페인산 식품첨가물서 12개 품목 판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분 강화 목적으로 쓰이는 스페인산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이 첨가물이 사용된 과자와 건강기능식품 12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식품첨가물은 독일 기업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페로인산 제이철’이며 국내 수입된 제품에서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됐다.

이 식품첨가물은 수입업체 쿠엔트

스씨에 의해 국내에 5천400kg이 수입돼 오리온의 ‘닥터유 골든키즈 100%’ ‘고소미’ ‘고소미 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블uemBerry’ ‘왕고래밥 매운맛 고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등 과자류와 해태음료의 ‘과일 촌씨에이 포도’ 음료,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미니맥스 멀티비타민 & 무기질’(딸기맛과 포도맛) 등 12개 제품에 사용됐다. 식약청은 이를 12개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돌입했다.

그러나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최대 22ppm 수준인데다 제품에 사용될 때 1만분의 1~2천분의 1 수준으로 허석되며 때문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22ppm이 2천분의 1로 허석될 경우 최종 제품에서 농도는 검출한계인 0.1ppm 이하로 낮아져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 제이철에 대해서는 유통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이 첨가물이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출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잠정 판매 중지도록 했다.

/연합뉴스

김황식 감사원장 來光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개소



김황식 감사원장이 25일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개소식 참석 차 광주를 방문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기념사에 이어 현

관 제막식을 갖고 한국광기술원과 광

주시립미술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기조실장에 송영철씨

전남도는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송영철(49·부이사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소속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관을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출신으로, 행정고시 28회인 송 부이사관은 광주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전남도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내무부와 광주시 기획관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장 등을 역임한 뒤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LA에 파견근무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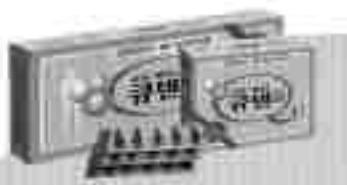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글신뢰’의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딜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성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들은 모두도 설령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비타민 A, C, E 혼합 보조

제제(锭), 캡슐(膠囊), 티백(茶包), 노른자(卵黃), 티백(茶包)

· 티백(茶包)은 티백(茶包) 티백(茶包)

·